

기관에 미치는 영향

03 심장 독성

항암제를 반복 투여하는 경우 용량이 일정량을 넘게 되면 심근에 영향을 주어 심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장 독성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심장 독성이 심할 경우 숨이 차고, 맥박이 빨라지며 몸이 붓는 등의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심장 독성이 나타난다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항암제 투여를 중단하고 다른 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상

-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 가슴을 조이거나 찌르는 것과 같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몸이 붓거나(특히 발목 부위) 숨이 차고 마른 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 어지럽고 의식이 몽롱해지기도 합니다.
- 이전에 비해 짧은 거리를 걸어도 숨이 찰 수 있습니다.



대처방안

- 심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심장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항암화학요법 자가관리 기관에 미치는 영향

ASAN MEDICAL CENTER PATIENT FAMILY EDUCATION GUIDE

서울아산병원 | 암병원 | 암교육정보센터



서울아산병원 암교육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05505)

대표전화 : 1688-7575

홈페이지 : www.cancer.amc.seou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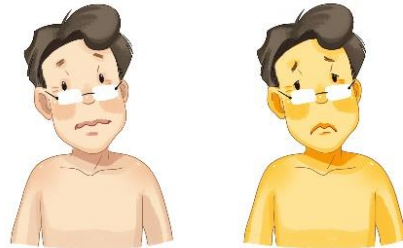
기관에 미치는 영향

01 간 독성

항암제를 투여하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항암제로 인해 간 기능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은 일시적이며 약물을 중단한 후 보통 2주 이내에 회복됩니다. 의료진은 항암제를 투여하는 동안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증상

-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황달)
- 입맛이 없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 평소보다 자주 피로합니다.
- 우상복부(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아프기도 합니다.
- 심한 경우 복수가 차고 소변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처방안

- 간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간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 심한 피로를 느낄 정도의 힘든 일이나 무리가 가는 행동을 피합니다.
- 처방된 약물 이외의 다른 약물, 민간요법,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경우 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 후 복용합니다.

기관에 미치는 영향

02 신장 독성

항암제를 투여하면 배설되는 과정에서 신장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몸이 붓거나 소변량이 줄고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독성이 있는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 예방 약제나 충분한 수액을 미리 투여하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신장기능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만약 신장 기능 손상의 의심되면, 항암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항암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스스로 기능을 회복하나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증상

- 소변량이 줄어들고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옆구리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처방안

-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 항암제 투여 전후 물, 주스, 차 등을 하루 2L이상 충분히 섭취하고 소변을 자주 보도록 합니다.